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1년
2022년 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6년 제 267 호

총기51년 신년하례법회 종령 법어

수행을 이끄는 별빛이 되어주기를



종령 법공 대종사

종단의 창종 반세기를 맞이하는 오늘 신년하례는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단의 50년은 무엇보다도 생사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하셨던 선대 스승님들의 교화와 수행정진의 역사이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중심을 가지고 오직 신심으로 신행생활을 이어온 교도들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종조님을 비롯한 역사를 이어온 수많은 스승과 교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처럼 뜻 깊은 이 자리에서 배전의 신심으로 일평생을 중생제도와 교화발전에 용맹정진 해온 기로스승 진원식을 함께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일대기 '불공 잘해라'와 50년의 종단 역사를 대집성한 '불교총지중 50년사'가 부처님 전에 봉정되었습니다.

비록 다섯 분의 스승님들이 기로진원을 하시지만, 우리는 곳곳에서 스승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발자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삶을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하셨습니다.

퇴임이라는 아쉬움은 뒤로하시고, 한평생 닦아온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법

운이 융창하시고,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종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종조 선양사업과 반세기를 기념하는 대작불사를 추진해왔고 이미 회향한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4주년 탄신대제를 맞아 종조 진영을 새롭게 모셨으며, 종조전이 정비되어 사상과 유훈을 널리 받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사업 중에 오늘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마지막 유훈인 '불공 잘해라'를 제목으로 한 대성사님 일대기와 '불교총지중 50년사'를 사부대중 앞에서 부처님 전에 봉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면서도, 종조님 멸도 40주년을 넘겨서야 일대기를 처음 내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책을 엮어 주신 분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며, 더욱이 역사적인 출간에 설판재자로 동참 해주신 1천 500여 명의 사부대중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봉정된 종조님 일대기와 총지중 50년사가 종조님을 뒤따르는 사부대중의 거울이 되고, 고해를 건너는 나침반이 되어 사바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때 길을 밝혀주고 수행을 이끄는 별빛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

우리는 교도나 스승이나 다만 역할만 다를 뿐 다 한 가족 같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승속의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도와 스승의 신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일체중생들에게 널리 가닿기를 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임인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 봉행

〈불교총지중 50년사〉, 종조일대기 〈불공 잘해라〉 봉정식도



총기 51년 임인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이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종령 법공 예하는 법어를 통해 “창종 반세기를 맞은 오늘의 신년하례는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있는 법석이다.”며 “종단의 50년은 무엇보다도 생사를 걸고 철두철미하게 수행한 선대 스승님들의 교화와 수행정진의 역사이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애중

심을 갖고 오직 신심으로 신행 생활을 이어온 교도들의 역사”라고 설파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또 창종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불교총지중 50년사>와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은 <불공 잘해라>의 봉정식도 열렸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불교총지중 50년사>는 반세기 종단 역사를 되짚어보며 아울러 한국 현대 밀교 역사를 정리하고 종

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밀교 경전 편찬과 의식 복원에 진력하며 한국 밀교의 토대를 마련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불공 잘해라> 역시 종단 교화와 제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두 책은 불교총지중 사부대중 1500여명이 설판재자로 동참해 2억 원 가까운 회사금이 모연돼 제작됐으며, 이후에는 종조 선양 및 종단 발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신년하례법회에서는 교화 일선서 물러서는 범등 정사, 승효제 전수, 시정 정사, 해안정 전수, 해봉 정사 다섯 스승의 기로진원식도 함께 열렸다. 이날 참석한 스승들에게는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이 사령장과 기로 가사를 수여했으며, 후배 스승들이 준비한 꽃과 선물도 함께 전달 됐다.

기로 스승을 대표해 승효제 전수는 퇴임사를 통해 “막상 퇴임하려고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 교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못 다한 일들을 해주길 바란다.”고 회고의 말을 이었다.

〈관련 기사 2면〉



신년하례법회에서 법공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 우인정사가 <총지중 50년사>와 종조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를 봉정 중이다. 사진=박상우 교무



중/조/법/어

수미산이 높다하나 부모은혜 더 높으며 자식 위한 일념 생각 태풍보다 더 빠르다

지 면 안 내

4면 기획연재 종단 사원사<1>
6면 종조 원정대성사 일대기 <4화>
8면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사

총기 51년 49일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1년 2월 19일(토)~4월 8일(금)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참석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배치 등 방역 조치 예정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 서원’

1월 9일, 임인년 새해불공 전국서 회향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불공이 지난 1월 3일 전국 사원에서 입재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을 마치고 9일 회향했다. 사진=본산 총지사

총지종의 전통 수행 정진법인 새해불공은 한해의 살림불공으로 원정 대성사가 입교개종과 함께 시행한 정통 수행으로 해마다 새해 첫 주에 시행된다. 종령 법공 예하는 본산 총지사에 일주일간 주석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개고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써 고난과 괴로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설한 것이다.”고 법문하고, “새해는 일체중생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해가 되기를 함께 서원하자.”며 새해불공에 동참했다.



보원 종사 열반 1주기 추선불사

한결같은 진언행자로서 정진해온 보원 종사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1월 22일 관성사에서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되었다. 보원 종사는 수행과 전법을 위해 한평생 정진하였으며, 제 6대, 7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앞장서오다 지난해 세수 82세, 법랍 40세로 입적했다.

제20대 통리원 주요종단 예방

제20대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당선 이후 한국종단협의회 신년하례법회를 앞두고 교계 첫 행보로 주요 종단을 방문하고 우의를 다져나갔다. 지난 1월 11일은 관문사를 방문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또 13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다. 14일에는 진각종(사진)과 태고종을 방문하여 도진 정사, 호명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총기 51년 기로진원식



〈위〉 통리원장 우인 정사, 혜봉 정사, 종령 법공 대종사, 승효제, 혜안정 전수
〈아래 위〉 혜안정 전수 〈아래 오〉 혜봉 정사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성도합니다.

오늘 퇴임을 하니 총지종에 입교해서 그동안 걸어왔던 소중한 인연과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일도 많았지만 수행하고 교화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감사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인연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며, 불법에 인연이 있어도 바른법으로 수행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가장 존귀한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후배들과 동료스승님들께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못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행하고 교화하면서 기쁨과 보람이 제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부처님의 은혜 한량없기에 앞으로 걸어갈 길들 또한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종단을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지 못하고 퇴직하기에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현직에 남아계시는 스승님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교화 환경에도 주눅들지마시고 어께 펴고 자신있게 교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법신대일여래 부처님의 가지가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효제 합장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큰 정진으로 법륜상전의 정토를 넓혀가자’

불기 2566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가 지난 1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66(2022)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

장 우인 정사, 총무부장 룡경 정사를 비롯해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지도자들과 수행단체 대표, 정계 인사 등 각계각층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명종에

이어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개회사, 신년하례, 축원, 법어, 신년인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동참대중을 대표해 원행 스님이 부처님께 등 공양을 올렸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비판’ 전국승려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스님)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단은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스승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불법의 존엄을 세우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내마음의 등불

선림사 도관 정사

우리를 사람은 상대적으로 생존하고 있다.
내가 이익하려면 남을 먼저 이익케 해야 하고,
남을 이익케 하면 나는 저절로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원적이며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다.
남을 해롭게 하면 내가 해롭고 남을 이익케 하면
나도 이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해야

또한 인과원칙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상대
할 때는 자기 가치만 상실하게 되느니라.
정치에나 부귀에나 지위에나 권력에나 명예에나
모두 상대를 인정해야 하느니라.

〈중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중에서〉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선림사 도관 정사님은 만보사 유가해 전수님을 지목하셨습니다.

틱낫한 스님

지혜의 눈

‘극락정토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없다’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는 참여불교 주장

베트남(월남, 越南)은 중국 대륙의 동남쪽에 위치하여 동북쪽에 위치한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위치한 지역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임을 지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중국보다는 인도 문명의 영향이 더 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남방 불교가 전파된 지역으로 중국을 거쳐 성립한 북방 불교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국한됩니다.

한(漢)무제 때 고조선을 멸하고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한 것처럼 베트남 북부에도 한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완전한 독립은 10세기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남부지역까지 영토가 확장된 것은 11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1885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인도를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하다가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인도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영국에게 인도의 지배권을 빼앗긴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화한 것이죠.

서구열강은 계속해서 동북아시아로 진출하였는데 이 지역은 그들의 대외 팽창의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서구열강은 힘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는데, 때마침 근대화 들어선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선은 베트남과 달리 서구열강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연스럽게 연대하였습니다. 베트남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호찌민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서로 교류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는 독립 이후 타의

에 의해 분단되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는 고대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하던 중 1965년 베트남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반전운동을 전개하여 남베트남에서 추방되었고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된 이후에도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베트남 난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프랑스에 플럼빌리지(Plum Village, 매화 마을)라는 수행 공동체를 설립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왔습니다. 틱낫한의 틱은 석(釋), 낫한은 일행(一行)의 베트남 발음입니다. 틱낫한 스님이 출가한 불교 종파는 임제종(臨濟宗)으로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법맥과 같습니다. 베트남어가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로마자로 표기하기 이전에는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었기에 베트남 북부의 불교는 대승 불교권에 속했던 것이죠.

베트남 불교는 틱낫한 스님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수행과 실천을 중시하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를 주장하였는데, 현재를 중시하는 특징은 임제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는 임제 선사(臨濟宗)의 ‘수처작주(隨處作柱)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는 가르침의 현대적 변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처(隨處)는 ‘지금 여기’이고 작주(作主)는 배타적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유연하게 적응한다는 의미로 주변과 융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곳곳마다 참다움이 드러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틱낫한 스님은 ‘극락정토는 지금 당장이 아니면 영원히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래의 구세불(求世佛)은 공동체를 통해서 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승가(僧伽)를 둡니다. 부처님은 좋은 도반(道伴)과 함께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틱낫한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사원史

정성으로 일군 도량①

고려시대 이후 맥이 끊겼던 진언 밀교는 서울 상봉동의 자그마한 2층 양옥집에서 시작됐다. 정통하고 바른 한국 밀교 종단의 재탄생을 발원한 원정 대성사는 1972년 8월 27일 상봉동 서울선교부(정심사)에서 교화를 단행했다. 진각종에서부터 대성사를 따르던 스승과 교도들이 모여들었다. 준제법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모두가 깊은 감화를 받았다.

대성사는 법을 알리라고 독려했다. 그렇지만 직접 사원을 열어 교화에 나서는 건 다른 문제였다. 마음은 있으나 자신이 없었다. 망설이는 제자들에게 대성사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 속에 있으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험난하지만 이 길을 가야한다’고 총지의 사명을 일깨웠다.

‘도량을 건너려면 바지를 훌훌 건어 부치고 뽕뽕 뛰어들어야 건널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대성사의 확신에 찬 가르침에 의지해 스승들은 죽비를 들었다.

곧바로 육자대명 본존을 모셨다. 11월 24일부터 채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서울에 총정로선교부(관성사), 동대문선교부(밀인사), 경주에 불국

선교부(승천사), 경주선교부(국광사), 밀양에 유천선교부(일상사), 안강에 안강선교부(건화사)를 개설했다. 그리고 12월 24일 정식으로 종단을 창종한 직후 사흘 동안 부산선교부(정각사), 포항선교부(수인사), 청주선교부(해정사)가 연이어 교화를 시작했다. 안방 혹은 자녀의 공부방이 서원당이었다.

마당 한 구석, 텃밭과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를 헐고 시멘트 블럭으로 서원당을 짓기도 했다. 대부분 가정집을 개조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벽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다. 턱없이 비좁고 허름하지만 청정한 마음하나로 꾸린 더없이 소중한 도량에서 비밀불교 의계의 불사법요를 시행하고 사중수법을 닦았다. 우주 법계에 닿을 듯 진실한 교도들의 정성은 민들레 흩씨처럼 퍼져갔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것이 바로 당체법문이라는 듯 일은 순조롭게 풀렸다. 창종 원년에 10개 사원으로 시작한 총지 도량은 이듬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인천, 경북으로 확대되었다.

의창선교부(선립사), 대전선교부

(만보사), 대구선교부(개천사), 성북선교부(실지사), 밀양선교부(밀행사), 현곡선교부(수계사), 전주선교부(흥곡사), 부평선교부(지인사), 부광선교부(성화사)가 진리의 문을 열었다. 작게는 2~3명, 많아야 7~8명의 교도가 시작한 불공이었다.

이른 새벽부터 교도들이 들고났다. 살림을 시작하기 전, 농사일에 나서기 전, 교도들은 아침 일찍 불공을 드렸다. 미처 들르지 못한 교도들은 일을 마치고라도 반드시 서원당에서 불공을 올렸다. 승속을 막론하고 계율을 지키는 데 엄격했고 진언 염송에 정성을 다했다.

어느새 월초불공과 자성일이면 선채로 참여해야 했다. 마당에 들마루를 놓아야 할 정도로 수십 명을 훌쩍 넘겼다. 이때는 종암동에 자리한 성북선교부(실지사)가 종단살림을 총괄했다. 이 곳에서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번역과 편찬, 수행의례와 행정 체계 정립에 몰두했다. 1974년 재단법인 등록을 마친 후 불교총지종 헌관을 세우고 강공회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해 초창기 종단의 사상과 수행법, 행정의 기틀을 완벽하게 다졌다.

〈불교총지종 50년사〉중에서

1973년, 교화의 거점을 세우다



심보이야기 최종희

법선 정사

집착하지 않는 자비(慈悲) 애타(愛他)의 삶

말나식은 제6의식의 심층에서 활동하면서 자아를 집착하는 마음이다. 우리들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집요하게 자아를 집착하여 온 것은 말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나식의 이러한 근원적이며 염오적 활동은 안식에서 의식에 이르는 표층의 심식을 오염시킨다. 그 결과 제6의식에 의한 인식은 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자아의식이 동반된 분별이기 때문에 항상 집착의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항상 활동하는 말나식의 작용이 단절되지 않는 한 자아에 대한 근원적인 집착심으로부터 해방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나 자기가 아닌 것과의 끊임없는 대립은 밑바닥에 잠재적인 자아 집착심, 즉 말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제6의식의 저변에 있는 자아의식을 소멸하지 않는 한 결코 집착이나 대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5식으로부터 제6의식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는 일단 말나식의 아(我)라는 사고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아(我)의 색깔이 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고친 정보는 밑바닥의 아뢰야식에 흡수하여 저장되는 것이다.

말나식을 가장 말나식답게 특징지우는 심소는 다섯 가지이다. 즉 아치·아견·아만·아애의 4번뇌와 해를 말한다. 이 네 가지 번뇌는 자기의 실상을 가리는 무지이기 때문에 자아를 그릇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구는 탐탁치 않은 마음이다. 아치는 자기의 참된 실태를 알지

못하는 무지이다. 인간의 자아는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자기의 진상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견식을 고집하게 되고, 자기 위주의 주장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며, 겸손하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아견이 생기게 되며, 남에게 교만하거나 거만해지는 아만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허상으로 자아상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애가 생긴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진상에 대한 깊은 자각도 없이 자기 혼자만의 뜬 생각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주위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언제나 자기를 내세워 대항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항을 하며, 자신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기임도 불구하고 상대와 자기를 비교하여 뽐내기도 한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와 남을 분명하게 골라서 분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것은 자기의 일’ ‘이것은 남의 일’ ‘이것은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이익이 안 되는 것’ ‘이것은 지금은 손해이지만 앞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두는 것이 좋은 일’ ‘이것은 끝에 가서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좋은 일’ 등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와 남을 분명히 갈라놓고 자기에겐 이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계산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잣대로써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매우 편파적인 것이 되고 만다. 말나식이 인식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다. 말나식은 자기 이외의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다만 자기에겐만 집중할 뿐이다. 말나식이 자아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은 개념이나 이론을 초월하여 선천적이고 본능적으로 집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라는 실체가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나식의 인식대상인 아뢰야식은 폭포수와 같이 잠시도 멈추는 일이 없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수가 바로 자기인 것이다. 그런데 말나식은 끊임없이 흐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말나식은 폭포수 같은 자기의 진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주불변하는 자아상을 만들어 내며, 그 허상에 애착을 품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말나식은 수행에 의하여 무아의 진리와 존재의 평등성을 각성하게 될 때 자기에겐만 치우쳤던 눈이 완전히 바뀌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 이기심이 자애로 변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다. 수행이 원만해지면 이기적인 자아에는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불보살이 우리들과 다른 점은 말나식의 차이에 있다. 즉 우리 범부들은 자신에게 집착된 삶을 살고, 불보살은 자비애타(慈悲愛他)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차시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겐 곧 실지(實地)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 편 중)

4. 나 자신을 위한 실천수행 ‘지계바라밀’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의 수행 가운데 불교의 모든 실천 교리를 망라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육바라밀 실천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육바라밀 실천 가운데, 첫 번째 실천수행인 보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의 내면적 성숙과 함께 이타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타행의 대표적인 실천수행이 바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커다란 공덕이 있는 종교적 행위’라고 경전에서도 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덕은 남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타심으로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시행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한 실천수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계입니다. 즉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바라밀 실천수행 가운데 지계바라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킨다는 뜻인데요, 계율은 불교 수행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청정하지 않으면 수행이나 불공,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자각하여야 합니다. 크게 깨쳐야 합니다.

불자라고 하면서도 계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겨자씨만치라도 있지 않다면, 불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입으로 짓는 업은 지계로서 경계하고 삼가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특히 기도나 불공기간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계행을 철저히 지켜야 청정한 일념으로써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또 현실생활에서 세간적 소원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이 청정해야 바른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수행이란 바로 심신의 청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정에서 깨달음이나 공덕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행은 곧 청정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행(戒行), 지계(持戒)는 바로 ‘청정(淸淨)’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계를 ‘청정지계(淸淨持戒)’라고 합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계’를 지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戒)를

정계(淨戒)라고도 말합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청정해지고, 청정함으로써 두렵고 두터운 업장이 소멸됩니다. 사실 업장소멸이 되어야 서원성취가 가능합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해탈의 주춧돌이라고도 합니다. 구름이 걷혀야 밝은 태양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계를 지키는 생활은 출가수행자에게만 해당되거나 적용되는 규범이 아닙니다. 출가 수행자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모든 불자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 태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물질만능, 황금제일의 초현대사회에서 무슨 계율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산업은 4차로를 달리고 있지만, 심신은 갈수록 비좁고 황폐해져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정한 삶과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오늘날 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지구촌의 마지막 보루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말법시대를 구제하는 길은, 오로지 청정한 생활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계’는 바로 계율을 잘 지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이를 방비지악(防非止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불공하면서, 과연 계를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또 가족의 서원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행동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선업을 짓는 것일까요? 악업을 짓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악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공해서 얻은 공덕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악업을 일삼으면 그 공덕을 모두 까먹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왼손으로 악을 행하고, 오른손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은 나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속이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우리

를 속일지라도 자신은 항상 청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악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불공을 하면서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악업만을 쌓는다면, 그 불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큰 공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불공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소원성취와 재난소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깨달음이 나 성불, 마음의 안정을 바라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작 일상생활이 불선(不善)하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불공한 공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공덕이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또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공덕은 시들시들해지고 맙니다.

제대로 말리지 않은 콩을 아무리 볶아 봐야 제대로 콩이 볶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다. 완전한 종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불공이 되었든간에 정말 자신 스스로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지 않고는 올곧은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행을 행해야 충실한 과일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업이 되므로 행동 하나하나에 항상 청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업은 바로 자신의 행동에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업은 절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는 결국 자기 자신이 짓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행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행은 오로지 자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계를 강조하는 것은, 지계가 악과보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공덕 짓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비도덕

지계는 계율을 지킨다는 뜻, 수행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아 ‘지계’는 곧 계율을 잘 지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생활

말린 콩은 바로 우리의 청정지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 즉 청정하지 않으면, 절대 수확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인선과(善因善果)라고 말합니다. 좋은 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인을 지어야 하는데, 수행에 있어서 좋은 인이란 바로 계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시행도 물론 좋은 인이지만 아무리 보시를 많이 했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고 입으로 온갖 구언을 짓는다면, 앞의 보시행은 결국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보시를 행하여도 계행이 없으면 그 보시행의 공덕도 완전한 과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을 심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반쪽짜리 종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생활규범인데요, 처음에는 이를 지키고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는 온갖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피게 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오계 뿐만 아니라 ‘선(善)을 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모두 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시바라밀도, 넓은 의미에서는 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이 곧 계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는 우리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악구, 기어, 양설, 망어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말을 하는 것까지 모두 계에 들어갑니다.

숨 쉬는 순간 순간이 모두 계의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잘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계는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맙니다.

계를 깨트리는 것은 곧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공덕을 까먹는 악업의 종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덕성취는 바로 지계에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는 데서 공덕이 일어납니다. 깨끗이 있게 됩니다. 바른 깨달음에서 나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절대적인 행복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계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이 곧 계행입니다. 활동하는 모든 것이 계행입니다.

삿된 말을 삼가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옮기지 않으며,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들이 모두 생활 속의 계행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먼저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를 지켜 소원성취’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요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요일	9시 30분 ~ 14시
점심시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중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4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1912년 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손에 넘어가자 부친 손기현은 큰 결심을 한다. 조용히 재산과 세간살이를 처분하고 망명의 길에 나선 것이다. 목적지는 만주 땅 서간도. 당시 독립전쟁을 펼치려는 이들이 거점으로 삼은 땅이다. 망명을 위한 준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가재도구는 모두 나누거나 내다팔았다. 급히 내다 파니 제

과 가족이 동행하여 떠났는데,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무리를 이루었다. 긴 여정에 혹시 모를 사고를 막고 낯선 땅에서 함께 정착하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은 만주에 미리 정착한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길과 목적지를 정한 후 움직였다고 한다.

안창호, 이회영, 이동영 등이 주축이 된 신한회新民會는 1910년부터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대규모 이주와 망명을 계획하여 진행했다. 주로 건너간 곳은 서간도 땅, 봉천과 인근인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 지역, 고구려의 옛 영토이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봉천은 지금의 랴오닝성 선양시로, 당시는 청나라 동변도에 속하는 지역으로 만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하고 군사기지를 만들어 독립군을

남은 하나, 미래의 희망을 싣고 동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당시의 일을 경험한 이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대성사는 어린 나이에도 의연하게 망명길을 걸어갔다고 한다. 가는 길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얻은 주먹밥 한 덩이를 형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6살 어린이인데도 칭얼댔을 없이 자기 앞에 놓인 운명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당당히 걸었다고 전해진다. 자신이 한 발 한발 내딛는 걸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한 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경험은 후일 새로운 시대의 교범을 열 때도 힘이 되었다.

망명길을 대부분 가을에 떠나는 것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지어 한 톨이라도 노자에 보탬 뿐 아니라 양식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

나라를 되찾자는 결기로 밀양에서 봉천까지 2천리 대성사 나이 6세, 어린나이에도 의연하게 망명길로

값을 받을 도리가 없었지만 빨리 처분하기 위해 헐값이라도 옥토며 세간살이를 넘겼다. 빼앗긴 조국이니 노비문서를 불살라 신분을 풀어주던 일도 망명객들 사이에 흔한 일이었다. 답살이하던 식솔들에게 가산을 나눠주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명을 보존하고 후일을 도모하여 밝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언약을 남겼다.

대부분의 망명객은 짐을 줄이고 줄여 이불이며 술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상례였다. 망명길에서 먹을 양식과 만주에서 첫해를 넘길 곡식,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심을 종자가 목숨을 지켜줄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 밖의 것들은 이 산하를 되찾은 후야 의미 있는 것일 뿐 조국이 왜인에게 빼앗겼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과 조국을 되찾겠다는 희망 앞에서 희망의 편에 서기로 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지요 신념이었다.

망명은 대개 사전에 뜻을 모은 여러 사람

양성하는 일이 망명객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다. 은밀히 동지를 모으고 망명을 도와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손기현도 그 뜻에 동참했다.

밀양에서 봉천까지 직선거리로 830킬로미터가 넘으니 거리상으로는 2,000리 이상, 산 넘고 강 건너 구비구비 걸어야하는 육로로는 3,000리에서 4,000리 정도가 되는 머나먼 거리이다. 젊은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하여도 여러 달이 넘게 걸리는 길이다. 게다가 길에서 만날지도 모를 도적떼와 일본 헌병과 경찰의 눈도 피했어야 하니 시간만 더욱 길어지고 길은 멀 수밖에 없었다. 대성사 가족이 길을 떠난 것은 1912년 가을 무렵. 대성사의 나이 6살, 형은 10살 때의 일이다.

원수의 땅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느니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다면 나라를 되찾아 자식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결기를 세운 것이다. 부모는 어린 두 형제를 앞세우고 소달구지에, 고국의 삶과 영예를 다 정리하고

다. 또한 압록강이 얼어야 강을 건너 만주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먼저 정착한 동지들의 도움으로 정착할 곳을 잡고, 운 좋게 겨울을 나면 다음 해 봄 곧바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 또 한 해를 살아가 수 있다. 그런 셈법으로 가을에 길을 떠났으나 ‘길 떠나면 고생’이라는 속담처럼 날은 점점 추워지고, 파듯한 고장 밀양보다 북쪽의 가을과 겨울은 혹독하다 못해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으로 다가섰다. 세월의 비장함 앞에 대성사는 어린 나이에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이동로는 험난했다. 밀양에서 청도-대구-안동-영주를 거쳐 소백산을 넘고 원주에서 춘천으로 가서 철원에 이르게 된다. 철원에서 신계-곡산-평양을 지나 개천과 영변을 지나치면 개마고원이 험하게 펼쳐졌다. 산과 산을 넘고 넘어 전천에서 다시 압록강을 향해 가면 드디어 국경인 초산에 닿는다.

초산에서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데, 대개는 겨울철 강이 얼었을 때 국경 경비대의 눈을

“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한 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경험은 후일
새로운 시대의 교범을
열 때도 힘이 되었다.

”

피해 한밤중에 월경을 했다. 대성사는 생전에 강을 건너던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다고 전한다.

“강이 꽁꽁 얼었는데 달빛이 환했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의지가 됐지만 일본군의 눈에 띄까 두려움도 있었다.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에 다시 짚으로 끈 끈을 묶어 채비를 마쳤다. 모두 준비가 됐을 때 주변을 살펴서 숨죽이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다. 모두 입 다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발걸음을 조심조심 내디뎠다. 간혹 찌렁찌렁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라도 얼음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 그렇게 숨죽여 도착한 곳이 만주 땅이다. 언 강을 건너니 살길이 열린 것 같았다.”

초산을 지나면 바로 압록강이 나오는데 망명객들은 강변야산에 몸을 감추고 밤을 기

다렸다고 한다. 몸을 녹일 모닥불조차 피울 수 없이 온몸으로 삭풍을 맞으며 때를 기다렸다. 밤이 되면 길잡이와 함께 국경을 건너 고국과는 작별을 고했다.

이 무렵 대성사 일행과 함께 혹은 앞서거나 뒤따르며 강을 건넌 밀양 출신 지사들은 모두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투사들이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대중교 3대 교주이자 민족학교인 동창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이끌던 단애 윤세복, 단애의 형인 백암 윤세용, 김원봉의 동지이자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윤세주, 독립운동가인 백농 이용식, 의열단 고문 황상규, 의열단원인 김산운, 한봉근, 한봉인 등이 망명에 나서서 서간도에 터를 잡은 밀양 출신이다.

그러나 척박한 이국땅에서도 마음 불이고 뿌리내려 독립을 위해 싸우기에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먼 길을 떠나 목적지에 닿은 것은 1913년. 대성사의 나이 7세 때의 일이다.

대성사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압록강에서 가까운 동변도, 중국 봉천성 환인현 남관南關, 즉 지금의 선양시에서 국경을 향해 남동쪽으로 치우친 곳이다. 주몽이 이곳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여 동명성왕이 된 후 졸본이라 불렀다. 고구려 유적인 오녀산성이 있어 압록강을 넘은 대한국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됐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운 후 이 지역은 신성한 땅으로 출입을 금하였는데, 청이 세력을 잃자 조선말부터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사실상 우리 민족이 정착한 곳이다.



삽화 김승연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022년 1월 1일 ~ 5월 31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 일대사(一大事) 인연(因緣)을 펼치다 ㉠하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위원회

225×300 전면컬러 |

양장 | 334쪽

출간일 2021년 12월 15일 | 비매품

ISBN 979-11-967794-3-6 04900

‘50년의 기록’ 대장정에 오르다

‘불교총지종 50년사’의 편찬은 창종 50주년을 앞두고 제19대 통리원 정책사업으로 발의되었다.

인선 정사는 2019년 4월 19일 교계 기자회견회를 열고 “총지종 5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승단과 신도가 함께 손잡고 선대 스승님들의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할 것이다.”고 발표한 이래 2019년 5월 ‘불교총지종 50년사 발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50년의 기록’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발간위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하여 발간위원회에는 우인, 범경, 원당, 범일, 덕광 정사, 자문위원으로 지성, 화령 정사 또 감수위원에는 범수연 전수 외 7명이 참여하는 등 종단 50주년을 맞이하며, 종단차원의 대대적인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

백년을 향한 통로를 위한 편찬

50년사의 편찬은 불교총지종 사부대중들에게 종단의 가치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애종심과 자긍심을 극대화 하고, 대외적으로는 불교총지종의 역사가 곧 한국정통 현대 밀교의 역사임을 알려 교화와 중생제도의 외연확대라는 가치를 두었다.

또한 사건의 이유와 목적에 주목하는 살아 있는 역사를 담고자 했으며, 역사가 시사하는 새로운 지향점을 통해 백년을 향한 통로를 열고자 하는데 제작 방향을 두고 작업이 되었다.



㉠상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하 종단 반세기의 기록 ‘불교총지종 50년사’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하여 제19대 통리원 집행부가 정책사업으로 2년 여 간 준비해온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와 종단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보는 ‘불교총지종 50년사’가 지난해 12월 15일 발간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종단 최초로 발간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는 종조 선양으로 교화와 제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50년사’는 종단의 지난 반세기를 통해 한국 현대밀교역사를 정리하고 종단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호에서는 ‘불공 잘해라’, 이번 호에서는 ‘불교총지종 50년사’를 요약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통사의 기록과 더불어 주석을 통해 교의와 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사원사를 별도로 수록하여 불꽃같은 교화의 역사도 함께 담아냈다.

또 기로스승을 비롯하여 200여 명에 다르는 스승과 교도의 마음을 모은 축하메시지가 수록되었으며, ‘기록과 기억’의 제하로 50년 간 수천 여 건이 넘는 종단의 역사를 정리하여, 주요 연표를 완성하였다.

시작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2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며, 총 500부가 제작되

제1부
정통밀교종단을 세우다
(1972년~1980년)

총지종의 근간이 되는 원정대성사의 창종과정과 의의를 서술하였다. 창종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서원당 개설과 사상 교의의 확립 과정이 담겨 있다.

01. 전사 : 정통밀교종단의 발아
02. 정통밀교종단 ‘총지종’ 창종
03. 밀엄정도의 기틀 확립
04. 한국불교계의 큰 별이 지다

제2부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발전하다
(1980년~1994년)

원정대성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온 과정을 기록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포교 영역 확대의 노력, 갈등과 위기를 새로운 지도체제의 확립과 종단 정비로 극복해 오며 한국 불교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해온 역사가 서술되었다.

01. 흔들림 없는 종단 운영
02.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대중 결으로 더 가까이
03. 위기, 쇠신의 기회로 삼다

제3부
건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
(1995년~2010년)

법장원 개원, 총지종보, 총지불교대학, 교양대학 등 연구와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고 사회복지 등으로 외연을 넓혀 종단의 건실한 발전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시기다. 각 사원의 탄탄한 운영과 인재 양성,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기록되었다.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02. 생활밀교의 철학을 사회공헌으로 회향
03. 재가불교종단의 위상 제고
04. 함께 뛰는 진언 행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
(2011년~2021년)

창종 40주년을 맞아 전개한 새로운 종풍운동을 시작으로 종조의 가르침을 재정립하고 현대화, 대중화함으로써 총지종의 도약을 도모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통일을 약에술제, 불교축구대회,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어울림 힐링센터 등 재가불교종단의 가치와 제도, 도심사원, 진언염송의 생활불교 수행상이 나타나 있다.

01. 총지로 하나 되다
02. 시대와 함께하는 총지종 구현
03. 재가불교종단의 모범 창출
04. 재도약을 위한 준비

발간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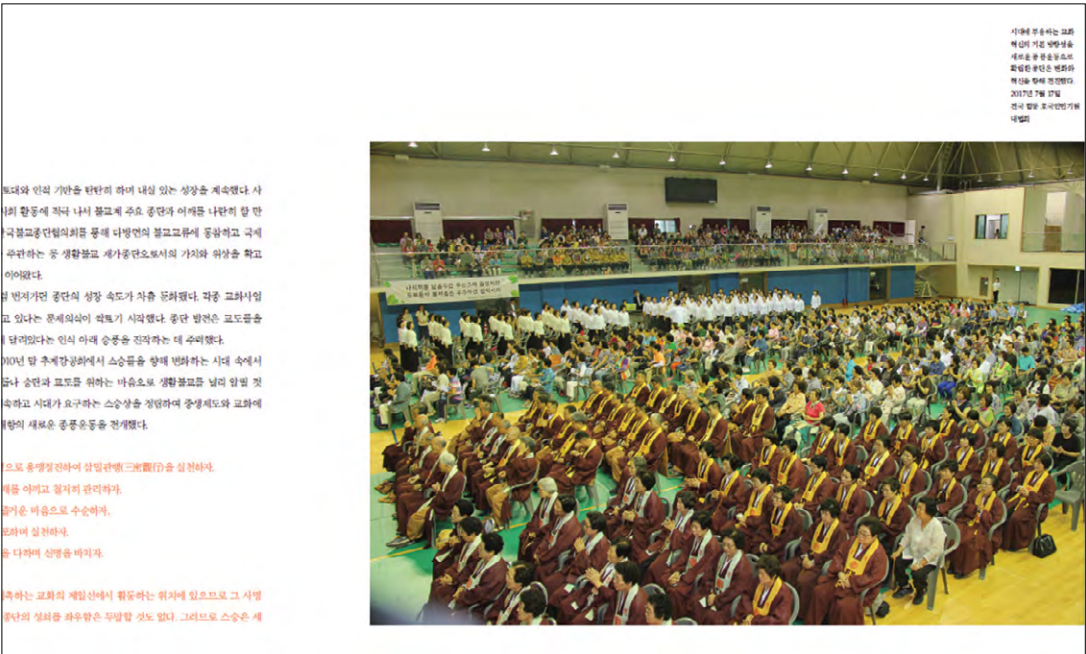
날날의 사업은 흘러져 있고 기억은 저마다 다르게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과 기억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을 때 과거는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밀교로서 새로운 불교를 공표했던 창종의 정신과 역대 스승님들의 교화원력과 헌신, 그리고 스승과 교도가 함께 손잡고 걸었던 반세기의 송고한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던 종단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깃든 생생한 목소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생활불교의 가치 아래 한국불교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재정립하여 부단히 혁신하고 정진했던 귀한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역사를 통해 내일의 지향점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창종-계승-발전-도약, 총 4부

‘불교총지종 50년사’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창종 원년인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정통밀교종단의 토대를 닦은 시기와 1980년부터 1994년 밀법 홍포의 대원을 계승 발전시킨 시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건실한 한국밀교 종단으로 거듭난 시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서술됐다.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밀교수행의 은둔자 롱첸빠

종가빠를 전후해서 티벳은 국가제도의 성장과 함께 불교국가로서 티벳 사회를 이끄는 승려들의 권위가 높아졌다. 티벳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교의 교학에 밝고 밀교 의식에 능통한 아사리들이었다. 당시는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한 종교 의식이 중요하던 시절이었고, 그것은 밀교였다. 밀교의 아사리가 되기 위한 관정의식은 스승이 되기 위해 중생의 고통이 다할 때까지 결코 안락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거듭된 서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티벳의 고승들이 거주했던 조그만 토굴이나 소박한 거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대를 이어 수행하고 사회적 봉사를 마다한 이름 모를 무수한 아사리들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전기 티벳불교의 토대와 전통을 세운 인물을 세 분만 추리면 종가빠와 사가빠니

하였다. 아버지는 뎀빠쑹으로 록부족의 밀교수행자였는데 하야그리바의 전승인 겐와 최강과 다른 갈래로서 예세왕뵈의 법을 이었다. 두 스승은 닝마빠의 조사인 빠드마삼바와 후기 중관파 논사인 산타락시파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일찍이 현밀겸수에 능통하였다. 어머니는 돔부족의 소남겐이었고 돔부족은 아미샤의 제자인 겐외중네를 선조로 두었다. 롱첸빠는 전통있는 집안에서 공부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고루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롱첸빠는 글을 배운 후 밀교의 본존관정을 일찍이 받고 아버지로부터 약학과 천문학 등 오명의 지식을 직접 배웠다. 12세 공부를 더하기 위해 삼예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14세 때 공가외첼로부터 계를 배웠다. 파시린첸으로부터 하까람데를 수학한 후

“
교의 아사리가 되기 위한 관정의식은 스승이 되기 위해 중생의 고통이 다할 때까지 결코 안락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거듭된 서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로부터 현밀의 교학을 두루 익혔다.

밀교수학의 절정에 이른 후부터 문수보살, 예가자피, 사라스와피, 부동명왕, 와즈라와라히, 파라보살 등을 환영속에서 친견

전승과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삼예사와 더불어 롱첸빠가 주로 거주했던 곳은 그가 스스로 오겐종이라 이름했던 곳으로 강리톡갈지역의 수도원이었다. 여

기서 롱첸빠는 200여권에 이르는 그의 대부분의 저작들을 완성하는 저술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롱첸빠는 56세부터 건강이 기울기 시작하여 침뽕에 침거한 후 여전히 제자를 지도하였고 일부 저술들을 남겼지만 그해 좌탈입망하여 열반에 들었다.

밀교로 말하면 엘리트 가문의 출신인 롱첸빠는 현밀의 교학들을 두루 익혔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롱첸빠는 요기로서 본존의 수기와 가피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수행을 위해 동굴과 수도원을 전전하는 밀교수행의 은둔적 요소가 많이 보인다. 롱첸빠는 티벳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한때 남쪽으로 이동해 남부티벳, 지금의 부탄지역에서 탈빠링사원을 세우고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 여기서 재가자를 중심으로 4단계의 족족수행을 지도하였고 이때부터 무수한 수도원을 건립하여 밀교수행의 본거지가 되게 하였다. 지금도 부탄은 롱첸빠를 기리는 많은 동굴과 수도원이 있어 승속을 가리지 않고 밀교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애를 저술과 수행, 250여 편에 이르는 저작 남겨
문수보살의 화신. 현교의 교학과 밀교의 수행의 교량을 마련

따, 그리고 롱첸빠(1308-1364)를 든다고 한다. 본명은 ‘롱첸 랍잡빠 디메외셀’이지만 간략히 롱첸빠라고 부르며 닝마빠의 인물이다. 티벳불교의 역사상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의 하나로 현교의 교학과 밀교의 수행의 교량을 마련한 분이다. 티벳불교 초전기 인도의 까말라실라 논사와 중국 선종의 마하연 선사가 대론을 벌였던 삼예사원의 주지직을 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애를 저술활동과 한적한 곳에 물러나 수행에 전념했던 인물이었고 주석과 저술 등 무려 250여 편에 이르는 저작을 남겼다. 롱첸빠의 전기에 대해서는 그를 존경하는 후손들의 칭송과 가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미사여구를 제외하고 사적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롱첸빠는 1308년 남부 티벳 뎀동지방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돌제겔첸이라 이름

까규빠의 나로윅법을 비롯해 와브라바라히, 찰끄라상와라판뜨라의 간타빠다 전승, 금강수의 마하차끄라, 왕축에세로부터는 갈라차끄라판뜨라를 전수받았다. 또한 쵸와 시제빠의 수행을 두루 익혀 당시 현밀겸수의 전승을 처음부터 수준 높게 익혔다.

롱첸빠는 19세 때 상뿌뉴톡사원에 들어가 까담빠와 사가빠의 전승에 입각해 불교 철학과 논리학, 특히 미륵 5부서와 달마끼르피의 인명학, 중관, 반야학을 공부하였다. 상뿌사원에 있을 때 밀교의 아누요가에 대한 관정을 비롯해 마하요가와 아미요가 등 닝마빠의 중요한 수행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롱첸빠는 캄출신의 승려와 갈등이 생겨 상뿌사원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어떤 승려의 권유로 시를 짓게 되었다. 롱첸빠는 당대의 인물들과 수학을 나란히 했는데 이름이 전해지는 스승들은 무려 21명에 이르며

하고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았다. 롱첸빠는 1332년부터는 라모지역 남동부에 있는 촉라동굴에서 깊이 몸을 감추고 밀교수행에 전념하였는데, 이때 닝마빠 밀교의 주요 수호존인 예까자피의 가피와 수기를 받았다. 1334년 25세 되던 해 롱첸빠는 립진꾸마라라자(1226-1343)를 만났으나 스승에게 보시할 의례적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하였는데 스승은 그를 알아보고 수제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가르침을 남김없이 전수하였다. 스승은 자주 이사하였고 후원자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롱첸빠도 더불어 항상 가난하고 굶주렸다.

롱첸빠가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32세 되던 해 삼예사 북쪽 작은 동굴에서 여덟 제자를 받아들이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닝마빠의 중요한 전승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였고 이들이 전한 중요한



롱첸빠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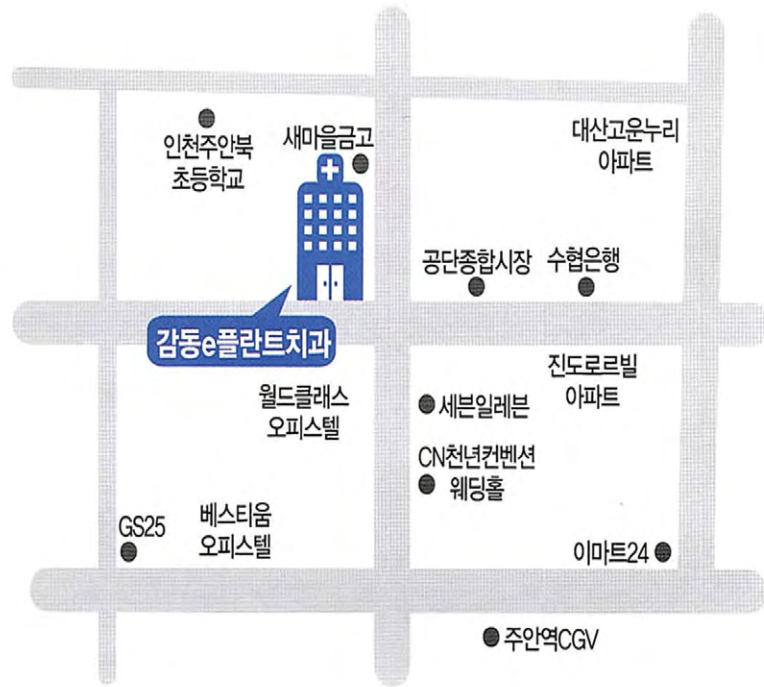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⑨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미래세에 오실 부처님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깨달은 이를 이르는 보통명사다. 경전에는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또 미래에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국 제타숲 외로운 이 돕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이 때에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나아가 공손히 문안드리고 한 쪽에 물러앉아 여쭙었다.

“고타마시여, 미래에는 몇 분의 부처님이 계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의 부처님은 갠지스강 모래 수처럼 한량없는 삼막삼붓다가 계실 것이다.”

<잡아함 권 34, 946 항하경>

그 무수한 미래의 부처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으로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그 때는 그 나라의 모습에 어떠한지 경전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그때의 남섬부주는 매우 편편하며 거울처럼 맑고 밝을 것이다. 온 남섬부주 안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인민이 번성하며 온갖 보배가 많고 마을들은 서로 가까워 닭우는 소리가 잇따라 들릴 것이다.<중략> 그때 기후는 화창하고 네 철은 때를 맞추어 사람 몸에는 108가지 근심이 없을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일어나지 않아 사람들 마음은 고르고, 모두 그 뜻이 같아서 서로 보면 기뻐하고 좋은 말로 대하며, 말씨가 같아 차별이 없기에 저 북구로 주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크고 작기가 꼭 같아서 여러 가지 차별이 없을 것이다.<중략> 그때 남섬부주 안에는 매향이 저절로 나는데, 껌질이 없으며 매우 향기롭고 맛나며 그것을 먹으면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중략> 그때 남섬부주 안에는 나무 위에 옷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그것은 매우 곱고 부드러워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 입을 것이다.

<증일아함 권44, 제48 십불선품>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의식주가 풍요롭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했다. 대승불교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불교를 소승불교라 비판하고 큰 수레를 만들어 다함께 성불하고자 하는 대승불교를 주창하며, 정토세계를 구현하여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 다함께 성불한다는 이상향을 제시하였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 돌아보자. 예전에 비해 의식주는 비약적으로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보면 기뻐하고 여러 가지 차별이 없는가? 아니다 차별은 날로 심화되어 극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20%의 부자가 80%의 재화를 독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1%가 9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기온은 화창하고 4계절은 때를 맞춰 오는가? 철없이 피는 개나리와 철쭉을 우리는 이제 너무 흔하게 보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화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평균온도는 1.1도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근 기온상승이 더욱 빨라지고 있고 시베리아 영구동토층까지 녹고 있어서 지구의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과학자들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1년 올 한해만도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호주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또 한쪽에서는 폭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고 수없는 야생동식물들이 희생되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곡물수확량이 줄고 이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까지 가중되어 세계 곳곳에서는 굶주림에 고통을 겪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남섬부주라 일컬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는 경전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우리가 성불하고자 하는 목적은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토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6바라밀이 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바라밀은 완성이란 말이고 궁극에 도달함을 뜻한다. 대승보살은 첫 번째로 보시를 실천한다. 모두가 소유를 통한 행복을 지향할 때 보살은 베품을 통해 다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시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기주의의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승보살의 보시의 실천이 긴요한 때이다. 6바라밀에 대한 설명은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듯하여 나머지는 생략한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겨내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이기심을 부추기고 차별을 강화하는 사회시스템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물질적 풍요를 평등하게 나누며 공생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로 돌보며 차별 없이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면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미륵부처님이 오는 정토세계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은 대승보살의 6바라밀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8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동시부문 대상

이모티콘 아기요정

권영주

귀여운 아기 얼굴
이모티콘 요정,
핸드폰 타고 날개 없이
빛의 속도로
피용 피용 날아다닌다.

내가 슬프거나 노여울 때
기쁠 때
기 죽을 때...

천의 얼굴, 만 개의 몸으로
달려와 마음 달래 주는 메신저.

카톡!카톡!카톡!
소리 앞세워

"파이팅!" 외치며,
오늘도
나를 깨운다.

"고마워, 파이팅!"
기운차게 별떡 일어나
얼른 친구 영수에게
내 마음 담아 이모티콘 보낸다.

이모티콘 아기 요정,
방글방글 웃으며, 조그맣 주먹손으로
매일 매일 행복하고 활기찬
오늘의 문을 열어준다.

월간 <한비문학>에 '동시'로 등단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한국동시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활동
동시집 <발맞추어 동동동>, <이모티콘 아기요정>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1~31)

제공 : 도서출판 윤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 현천 역	선요가
2	보리도차제의 마르티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벤첸라마 롬상예	윤주사
3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김천 불교총지종 엮음	윤주사
4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5	오래된질문: 내안의 두려움을 마주하는 인생의 지혜를 찾아서	다큐멘터리 제작팀 장원재	다산북스
6	풍경소리(1) 나를찾는 지혜	풍경소리/정병례	풍경소리
7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번역	하늘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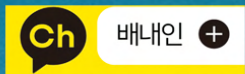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후원업체
(주)동원글로벌

Bene

배내인 물티슈

배내인이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입히는
배 냇저고리의 의미처럼 부모 사랑을 뜻합니다

구입방법:쇼핑몰 benein.com /



카카오 배내인 추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리점 ,유통상담한영 /라벨 인쇄 판촉용 상담
대량 구매 상담 T.070-7596-2401



엠보싱 물티슈 100매입

엠보싱 적당한두께



베이직 물티슈 100매입

가성비갑 사무실용으로 최고



휴대용 손세정물티슈 30매입

알코올함유



종립 동해중학교 제52회 졸업식 개최 ‘겨레 위한 봉사, 인류를 위한 헌신’ 당부



송인근 교장과 함께 학교장상을 수상한 김민수, 김효준, 탁우현 학생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2021학년도 제52회 졸업식이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재학생 방학식과 함께 각각 교실에서 진행됐다.

졸업생 149명을 대표하여 조은제 학생회장이 송인근 학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았으며, 재단 이사장상에 정윤혁 학생, 학교장상은 김민수, 김효준, 탁우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김민수 군 외 6명의 학생이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았다.

송인근 교장은 축사를 통해 “중요한 출발의 자리에서 금정산처럼 멀리 보고, 낙동강처럼 함께 가서 더 큰 세상을 만나길 바란다.”며 “겨레를 위해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동해중학교는 올해 한국과학영재고를 비롯한 부산과학고, 현대청운고 등 국내 내로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졸업생 중 30% 이상이 진학하는 미래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석관실버센터 ‘석관지니어스봉사단’ 창단 세대공감, 두뇌건강 등 경륜 재능 나눔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산하 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나석원)가 어르신 전문 봉사단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을 창단’하고, 지난 1월 24일 센터에서 제1기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참석하여 창단 선포를 했으며, 21명의 봉사단원들에게 각각 임명장이 수여됐다.

석관지니어스봉사단은 단순 봉사나 친목을 위한 모임을 지양하고, 교

육을 통해 각 분야 별 전문성을 습득한 어르신들이 경험 및 경륜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년층의 사회 참여 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창단되었다.

지난해 성북구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0+재능나눔아카데미’과정을 수료한 어르신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유치원 원아들과의 텃밭활동과



‘석관지니어스봉사단’ 창단 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단원 기념촬영

바자회로 지역주민들과의 세대공감 봉사, 치매예방 특화사업을 함께해 나갈 두뇌건강 봉사, 어르신들의 스마트폰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봉사 등 세 파트로 나누어 활동하

게 된다. 나석원 센터장은 “이번 창단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의 재능 나눔 활동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지/문/답 ⑮

결연관정, 수명관정, 전법관정

밀교에서 관정은 전법의 인가와 특정한 부처님과의 불연을 맺기 위한 절차이다. 제자는 관정을 받기 7일 전부터 불전에 성심껏 불공하고 허물을 참회하며, 스승 또한 7일간 진언을 염송하고 관정도량을 세우고 성대하게 공양을 올린다.

결연관정은 승속이나 근기 등을

물지 않고 밀교와의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하는 관정의식이다. 제자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스승은 병의 물을 세 번 정수리에 붓고 부처님에 해당하는 결인과 다라니를 준다. 수명관정은 입문하는 제자를 위하여 행한다. 수많은 불보살이 그려진 만다라에 꽃을던져 자신이 귀의

하고 마음 깊이 간직할 불보살을 선택하는 밀교의 투화득불(投花得佛)의 전통에서 비롯되어 만다라에 꽃을 던져 인연 있는 불보살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불보살에 대한 삼밀의례와 다라니를 일러준다. 불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므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과 교화에 힘쓸 것을

서원하고 계를 수지함으로써 진언행자로서 신구의 삼밀을 청정히 닦을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전법관정은 제존의 삼밀법문에 통달한 제자에 대하여 스승이 아사리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서 이 관정을 받은 제자는 이후 아사리로서 법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고이 간직 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코로나19로 2년여 만에 서원당에 법음이 울려 퍼졌다.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단장:최해선)이 지난 1월 13일 봉행된 기로진원식에서 퇴임하시는 스승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불가 ‘묵탁새’와 ‘좋은 인연’으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사진 총지사=박상우 교무)

고맙습니다

정각사 김미자 교도 자제
이창석 님 종단발전기금
5백만 원 회사



축하합니다

정각사 김점남 교도 작은사위
김재한 님 경정 승진

정각사 손수연 님
이화여대 미술디자인학과 합격

총 지 스 캐 치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 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울출야호사'로써 국민안전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총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해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심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호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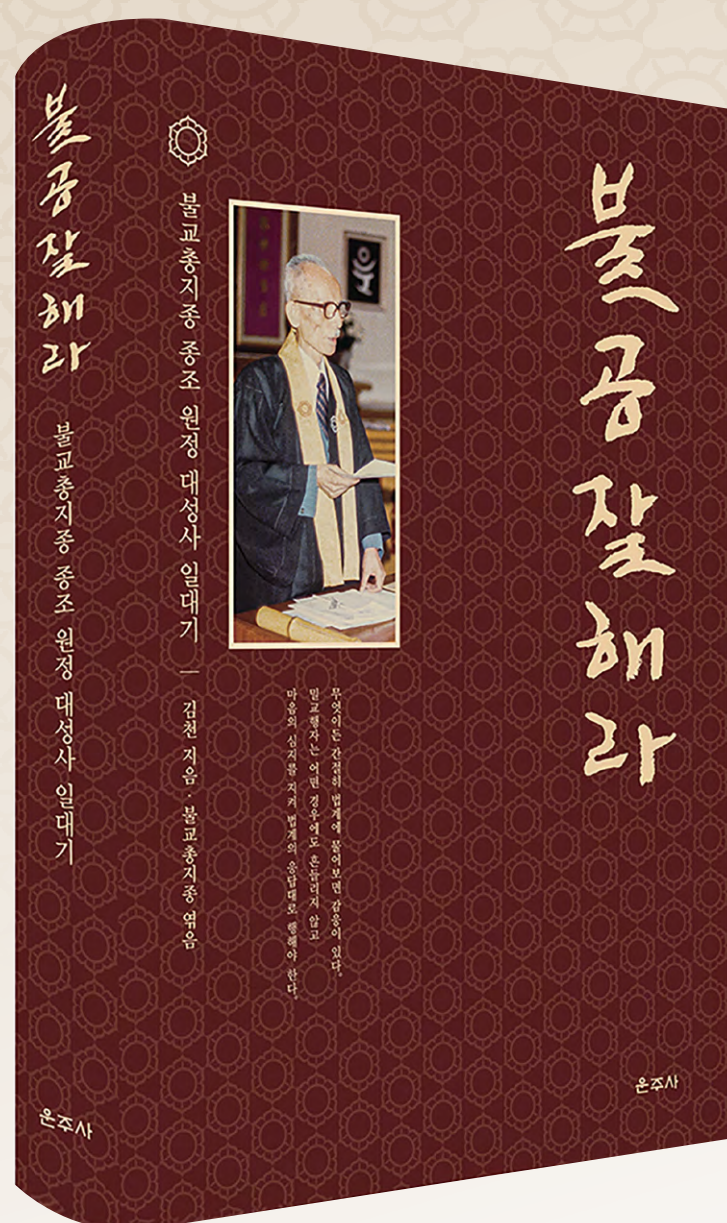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밀교경전의 번역과 편찬, 그리고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
현대 한국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원정 대성사!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을 밝힌
‘생활불교, 재가불교’ 종단 불교총지종!



불공잘해라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